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03035) 서울시 종로구 지하문로17길 12-15 전화 02-392-0181 팩스 02-392-3722

전국언론노동조합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전화 02-739-7285 팩스 02-735-9400

한국기자협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3층 전화 02-737-2483 팩스 02-738-1003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 기자회견문]

대선보도, 저널리즘 본령으로 돌아가자

5천만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유권자가 올바르게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령에 충실해야 할 미디어가 민주적 역할을 스스로 방기하거나 외압 등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발족을 선언합니다.

선거 기간 언론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언론은 유권자의 권리 신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치·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확산을 그 목표로 두고,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의제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선거 때마다 후보 동선만 따라다니며 문제의식 없이 그들의 주장을 따옴표로 단순 전달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자질과 정책보다는 이미지에 치중한 보도, 선거를 승패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당락을 점치는 데 몰두하는 보도,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갈등이나 대립을 부추기는 보도, 검증을 빌미로 한 검증되지 않은 선정적 의혹 보도, 네거티브 등 부정적 정치 공방 위주 보도 등은 오히려 유권자의 정치 혐오와 냉소, 무관심을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언론은 이번 대선을 '비호감 선거'로 정의했지만, 비호감 선거 기반을 만들고 심화시킨 데는 정치뿐 아니라 미디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거친 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일부 인사가 SNS에 쏟아내는 저질 촌평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넘실대는 혐오 차별까지 미디어로 옮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방법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인 여론조사를 경마 중계하듯 보도하는 행태는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한 일부 뉴미디어 채널이 기성 미디어의 비교우위를 빠르게 빼앗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금융정책 이해도를 검증한 유튜브 채널에 쏟아진 찬사는 깊이 있는 정책보도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며 토론을 회피하는 후보들을 비판조차 하지 않는 기성 언론에게 던져진

엄중한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선거보도의 기본, 저널리즘의 본령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22 대선미디어 감시연대는 남은 선거 기간만이라도 언론이 '선거보도준칙'을 준수해 유권자 중심, 정책 의제 중심 보도로 '비호감 선거' 터널에서 자발적으로 빠져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미디어감시연대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선거보도감시준칙'을 '선거보도준칙'으로 발전시켜 미디어 노동자들이 선거와 관련한 보도 및 프로그램 제작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도준칙이 기성 언론에 드리운 정책 실종 선거, 네거티브·막말 선거의 그림자를 걷어낼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제라도 미디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 지금 거대 미디어 플랫폼의 뉴스유통 독점과 알고리즘은 정보를 편식하는 확증 편향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포털 종속화가 심화되면서 포털 뉴스는 사실상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일부 채널이 대선후보 정책 검증을 선도하며 긍정적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아직도 상당한 채널은 정치적 허위조작정보 유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급격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유튜브와 포털뉴스에 대한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포털, 유튜브, SNS 등 신유형 뉴스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정보·뉴스 유통의 변화가 선거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 방안 모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포털과 유튜브 모니터 방법론을 체계화해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언론비평의 틀을 만들고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엔 저널리즘 본령을 지키려는 건강한 언론과 양심적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좋은 언론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로 손을 맞잡은 지금 5년 전 1천만 촛불이 꽃피운 민주주의 정신을 새기며 언론이 선거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되찾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25일

